김영윤 (Youngyoon Kim)

제목: LONELY VINYL PLANET

LONELY VINYL PLANET (론리바이닐플래닛)은 매일 한 가지 앨범을 선정하여 직접 바이닐을 턴테이블에 얹고 재생시켜보고 감상하면서 바이닐이 가진 감성과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.

80년대 이후 사양산업에 가까워졌던 바이닐 산업은 최근 다시 부흥하고 있으나 아직은 마니아층에 한정되어 있다. 이 프로젝트는 바이닐의 감성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과 바이닐만이 가진 감성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하여 출발했다. 론리바이닐플래닛은 오늘날의 트랙을 이것저것 골라 듣는 스트리밍 방식 대신 바이닐을 통해 한 가지 앨범을 쭉 들어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바이닐이 가진 음악에 대한 집중력과 독특한 매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.

론리바이닐플래닛의 이름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분산된 형태의 음악감상 환경에서 벗어나 음악과 자신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외로운 행성같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. 관람자로 하여금 음악과 자기 자신에 몰두할 수 있는 명상적 체험, 음악을 존중하는 느낌 등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론리바이닐플래닛의 목표이다.